

2023년

제1차 이사회 결과보고 및 회의록

- ❖ 일시: 2023. 01. 28. (토) 11:30~15:30
- ❖ 장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벨로드롬 1층)



대한장애인골프협회

Korean Differently Able People Golf Association

제1차 이사회 결과 및 회의록

□ 이사회 개요

○ (일시) 2023. 01. 28. (토), 12:30~15:30

※ 인근 식당(산들해 송파점)에서 점심 식사(11:30) 후 12:30 경부터 이사회 시작

○ (장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 (올림픽공원 내 벨로드롬*)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벨로드롬 1층(방이동)

○ (참석) 재적 이사 18명 중 12명 참석

회장 (1)	송태섭
임원 (11)	하태성 (수석 부회장), 김종일 (부회장), 박상빈 (부회장), 선인태 (이사), 백승천 (전무이사), 장세주 (이사), 명기숙 (이사), 조태형 (이사), 윤석권 (이사), 소명원 (이사), 노승덕 (이사)

※ 【배석】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사무국 직원 3명(사무국장, 과장, 주임)

□ 주요내용

(1) (보고: 총 5건)

① 전차 이사회 (2022년 9월 29일) 초록 보고

② 감사 결과 보고

③ 사임 및 신임 임원 보고

④ 필드골프 등급분류 규정 개발 보고

⑤ 지도자 등록 규정 변경에 따른 지도자 등록 대상 변경 보고

(2) (심의: 총 2건)

① 2022년 사업 결과 및 결산

② 2023년 사업계획·예산(안)

※ 참석 이사 전원 동의로 원안 의결 및 폐회

(3) (기타토의)

회의록

-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사무국장 박민균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한장애인골프협회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

- 사무국장: 먼저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음향〉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보고〉

- 사무국장: 재적 이사 18명중 12명 참석으로 정관 제25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장: 화상으로만 뵙다가 직접만 나니 감격스럽네요. 올해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각자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임원분들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협회 여기 수석 부회장으로 계신 하태성 부회장님, 그리고 김종일 부회장님은 충남 협회 회장님 이십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박상빈 부회장님은 양주에서

요양원을 하고 계시고 건축업을 하고 계십니다. 백승천 이사님은 이번에 중앙협회 전무이사로 직위가 변경 되었습니다. 장세주 이사님은 한국 피닉스파크골프 회사 사장님이시고 조태형 이사님은 수원대학교에서 골프 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은 SK세이콥의 사장님으로 계십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기숙 이사님은 안산시 협회 회장하시다가 지금은 자영업 하시고 계시고 선인태 이사님은 회장님은 전북회장님이시면서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소명원 이사님은 안산시 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윤석권 이사님은 안산시 공무원이시면서 서울 여의도에 과전 공무원으로 나와 계신 분입니다.

- 윤석권 이사: 네 반갑습니다. 제 신상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안산시청 서울사무소 소장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법무법인의 이사로 들어가 있고요. 민주당 서울시당의 장애인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혹시 도울 일 있으시면 저희 골프협회를 위해서 혹시 당에서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감사합니다. 노승덕 이사님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 노승덕 이사: 반갑습니다.
- 선인태 이사: 이사회 시작 전에 새로 오신 이사님들 간단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빈 부회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취임한 박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양주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회 임원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협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승덕 이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입 이사로 선임된 노승덕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아마 2010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 제가 그때 이제 가맹단체 있을 때 비상임 사무국장 일을 했었고 지금은 현재 인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제가 장애인 체육을 계속 해왔고 특수체육을 전공한 용인대학교에서 학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에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 인지 많이 고민하다가 이번에 회장님께서 이사로 선임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협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형 이사: 저는 조태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이사회에 참석을 많이 못 하여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태섭회장님께서 경기도골프협회 하실 때부터 같이 옆에서 제가 서포트를 했었고요. 저는 사실은 수원대학교에서 골프를 한 15년 교육했고, 올해 다시 복직을 해서 다시 또 골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청주에 가서 반도체 사업을 하느라고 협회에도 참석도 못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모로 안정이 돼 있어서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골프 협회들 대한민국골프협회에 소속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회들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을 해서 그런 협회하고 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예전에 회장님하고 많이 의논을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조금 더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저희 우리 골프협회가 두각을 나타내고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국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1호, 전차 이사회 초록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회순에 따라 전차 이사회 초록을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전차 이사회 초록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3차 이사회는 2022년 9월 29일 10시에 재적이사 19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안건으로 ‘2022년 제2차 이사회에 대한 초록’이 있었으며, 심의 안건으로 파크골프 규정 개정(안), 제42회 전국체전 준비 TF팀 구성(안), 교육위원회 구성(안), 교육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심판 자격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재적이사 11명 전원이 원안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초록에 잘못 기록 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없습니다
- 의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2호, 감사 결과 보고입니다.
- 의장: 회순에 따라 사무국 감사 결과 보고를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4쪽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자체회계에 대한 결산 사항을 이사회 회계감사와

내부 행정감사께서 검토한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 보고 내용은 보시는 안전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업결과 및 결산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바로 이어질 안전 심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결산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인태 이사: 이미 지난 자료 보내주신 거 잘 봤습니다.
- 의장: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3호, 사임 및 선임 임원 보고입니다.
- 의장: 회순에 따라 사임 및 선임 임원을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배부해 드린 안전자료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3차 이사회 이후 2023년 1차 이사회 개최 전일 까지 김정포 부회장, 이영재 이사, 정운철 이사, 강기성 이사 총 4명의 이사가 사임하였으며, 새로 선임된 임원은 박상빈 부회장, 노승덕 이사 총 2명입니다. 아울러, 백승천 이사를 2023년 1월 13일 부로 전무이사로 직위 변경하고 중앙협회 결재선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국 행정업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사무국장과 회장 사이에 임원을 추가하라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의 조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2년 2월 1차 대의원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전원찬성으로 임원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여 이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사임 및 신입 임원 보고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다음은 보고사항 제4호, 필드골프 등급분류 규정 개발 보고입니다.
- 의장: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필드골프가 앞으로 패럴림픽을 대비해서 저희 협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까지는 아마 전시 종목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정식 종목으로 승격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외주를 줘 가지고 필드골프 등급 분류를 규정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회순에 따라 필드골프 등급분류 규정 개발 관련 내용을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배부해 드린 안전자료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부터 12월 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기금 3,5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필드골프 등급분류 규정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규정 개발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급분류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순천향대학교 재활의학과 박지웅 교수를 포함한 5명의 의학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필드골프 등급분류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격장애와 부적격 장애, 그리고 최소장애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필드골프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장애는 신장 장애, 간 장애, 간질 등과 같은 내부기관장애와 청각장애가 해당 됩니다. 최소장애기준은

지체/뇌병변장애 선수에게 적용되는데 참고로 현재 지체/뇌병변 장애로 장애 판정을 받으신 장애인 분들은 중증 경증에 상관없이 필드골프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드골프 스포츠 등급을 정의하였습니다. 9쪽에 보시는 것처럼 장애 유형별로 총 10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지체 및 뇌병변 장애는 스탠딩 3개, 휠체어 3개 등급으로, 발달 장애는 1개 등급으로, 시각장애는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협회 등급분류 규정을 적용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는 2월 총회에서 필드골프 등급분류 내용을 보고하고 각 시도지부에 필드골프 등급 규정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필드골프 등급분류 규정을 확정하여 금년중에 필드골프 선수에 대한 등급분류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등급분류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 의장: 보고 드린대로 필드골프 등급분류 규정 개발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권 이사: 의견이 아니고 지금 질문인데요. 이거 스탠딩 3개 등급에 여기 위에 보면 장애인 골프 적격 부적격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게 예를 들면 청각장애하고 내부 기관 장애는 이 스탠딩 등급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 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청각장애, 신장 간장 장애와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제외 되었습니다. 청각장애는 농아인 스포츠협회가 별도로 있는데 청각장애를 포함해서 장애인 스포츠를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포함하지 않고 있는 종목도 저희 파크골프 종목은 청각장애 유형을 포함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리고 간장, 신장, 심장 등과 같은 내장기관 장애 유형의 장애는 현재 장애인 체육의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스탠딩 등급으로 들어오셔서 지체 뇌병변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경기를 하시고자 하는데 내장기관 장애 유형

선수가 지체/뇌병변 장애인분과 동일하게 경기를 한다는 게 맞지 않고 그러한 장애 유형은 아직 장애인 체육 쪽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 저희가 포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윤석권 이사: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안면장인데 그러면은 비슷하게 저도 이제 스탠딩 등급 안에는 안들어가겠네요?

○ 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 윤석권 이사: 네 알겠습니다.

○ 소명원 이사: 그에 따른 내용인데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오픈 등급 등 선수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수십 명이 거든요. 예전에는 여기 시각 장애인처럼 시각장애인들 대회가 있었고 또 오픈 등급이 P3 등급으로 이렇게 약간의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많이 대회를 참가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이 부족한 편인데 등급분류 규정을 조금 완화시켜서 문턱을 낮춰주면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막혀 있고 안산도 지금 여기 필드나 마찬가지로 청각장애 클럽이 있어요. 우리 골프 소속이죠. 소속인데 안산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고 전국대회를 출전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필드가 아니라도 파크에서라도 등급을 완화시켜주면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카드만 있으면 이렇게 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등급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면 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석권 이사: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저도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장애인골프협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지금 이 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 유형이 대체로 이제 기능상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이제 복잡화 다변화되면서 우리가 포착되지 않은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신장 장애라든지 간장애라든지 또 간질 장애라든지 이런 내부 장애하고 저처럼 안면 장애라든지 기능상의 장애는 없지만, 어찌 되었든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폭넓은 장애 유형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만의 리그를 하나 만들어서 골프협회에서 뭔가 이렇게 등급을 좀 더 또 하나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 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골프협회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가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P4 등급을 만들어서 등급분류 규정을 개정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골프협회 등급분류 위원장님이 등급분류 규정 개정을 위해서 한 1년 동안 같이 고생하시다가 지금 그만두셔서 애로사항이 저희도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드골프 등급분류 규정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인태 이사: 이 종목등급 10개 등급이 이번에 등급 분류 개발 과정에서 나온 안 입니까?
- 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체 뇌병변 장애 유형에 스탠딩 3개, 휠체어 3개, 지적장애 1개, 시각장애 3개 등급입니다.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장애유형이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데 이 유형에 해당 되는 스포츠 등급은 스탠딩 3개, 휠체어 3개인데 필드 골프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장애 기준을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파크골프는 지금 최소장애 기준 자체가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인데 필드골프의 최소장애 기준은 파크골프보다는 좀 높습니다. 최소장애기준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지체 뇌병변 장애 유형으로

국가장애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누구든 등급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 의장: 작년에 전국체전에 보니까 필드 골프 선수 중에 거의 장애인 같지 않은 선수가 참가하였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 전선수 체육인지원센터장이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등급분류 연구용역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건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등급대로 올해 필드 골프는 전 선수가 다 등급별로 재등급을 받아가지고 필드 골프 대회를 할 겁니다.
- 사무국장: 네 필드골프 등급분류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올해 내로 등급규정 확정 및 선수 등급분류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드골프는 파크골프처럼 병원을 지정해서 할 수가 없는데, 현재 등급분류에 참여하신 의사 선생님을 등급분류 패널로 모시고 전국의 필드골프 선수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등급분류평가를 진행하는 형태로 계획 중입니다.
- 하태성 부회장: 시각장애 등급분류를 지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 사무국장: 시각장애 분류는 B1, B2, B3로 국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시각장애인스포츠협회에서 지정한 등급분류 안과병원에서만 등급을 받으실 수 있고, 그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도 똑같이 필드골프 시각장애 등급을 적용할 겁니다.
- 하태성 부회장: 그러면 지금 현재 파크골프 등급분류 받는 병원이 지금 선정이 돼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따로 있어요?

- 사무국장: 네 시각장애인은 지정된 안과가 따로 있습니다. 대한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에서 지정한 안과이고 등급분류 기준은 IBSA라고 하는 국제시각적인스포츠연맹에서 정한 국제시각등급 기준을 사용합니다.
- 윤석권 이사: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 지금 스포츠 용역이 진행이 되고 지금 1차 안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향후 일정에 보면 올해 2월달에 총회 있고 의견수렴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현장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에서 추가적인 어떤 등급 분류가 좀 확정이 된다는지하는 계획이 있는지요?
- 사무국장: 2월 3월에 시도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런 의견들을 종합하여 의사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여 등급분류 규정 최종본을 확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석권 이사: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확정을 해야지 나중에 그런 가정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랄까 필드골프등급 분류 설정해 놓고 나중에 이제 협회가 또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 장애유이 크게 3개로 나뉘져 있지 않습니까, 지체 및 뇌병변장애 그 다음에 발달장애, 시각장애 이렇게 돼 있는데 신장, 간, 장루 장애, 그리고 저처럼 안면장애 같이 사지는 멀쩡한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포괄해서 기타 장애 이런 식으로 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좀 더 검토해 보셔서 이게 적절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사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등급분류에 참여한 전문가와 논의하고 2월 11일 개최 예정인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또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형 이사: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달장애 학생을 많이 가르쳐봤는데 발달장애도 골프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경계선에 있는 친구가 있고 아주 심한 친구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발달장애라는 사람이 한 등급으로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쭙보고 싶은 거는 여기 이 장애 유형대로 만약에 스탠딩 GS1에서 장애정도가 상 중 하가 다섯 분씩 나왔다고 치면 이 상, 중, 하의 상은 몇 타 이렇게 핸디를 줍니까?
- 사무국장: GS1 등급 내에서 경기를 하면 나온 타수 그대로 적용하고 핸디를 주지 않습니다. GS1은 GS1끼리 GS2는 GS2끼리, 등급 분류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걸 구분해가지고 조금 더 공정하게 장애유형이 다르지만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스포츠 룰이기 때문에 핸디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오픈등급이다 보니 선수들이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가 다른데 핸디 없이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등급규정이 없지만 대회를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3개 정도로 등급을 구분하여 좀 더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스포츠 등급이라는 것 자체의 취지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핸디를 줘야한다는 필요성이 생기면 등급 분류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경기 규정을 저희가 개정을 하여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형 이사: 어쨌든 발달장애에서 여기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조태형 이사님 말씀하신 대호 지적장애도 정도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지적장애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진단서에 나오면 확정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애매한 한 문제가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5호, 지도자 등록 규정 변경에 따른 지도자 등록 대상 변경 관련 보고입니다.
- 의장: 회순에 따라 지도자 등록 관련 내용을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배부해 드린 안전자료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 등록규정에 제19조에 따라 2023년부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지도자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지도자 등록 불가합니다. 2023년 2월에 개최되는 동계 체전부터 해당 규정이 바로 적용되며 파크골프 종목 또한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자격이 없는 지도자는 지도자 등록이 불가하고 전국체전 감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규정 내 명시된 지도자 자격이 없는 지도자는 체전에서 인솔코치로 참가가 가능하나 경기운영 관련해서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안전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따신 분도 있고 시험을 아예 못 보신 분도 있고 보셨지만 떨어지신 분도 있고 하시겠지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이 돼서 기타 자격이 있는 지도자가 등록을 못한다는 내용은 2020년도부터 계속 규정에 명시돼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적용이 계속

연기가 되다가 금년부터 적용이 확정 되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처음 시행을 하면서 자격 취득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체육회에 요청을 드렸지만 체육회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이렇게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선인태 이사: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 17개 시도, 세종시를 제외하더라도 16개 시도 감독 코치로 체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파크골프에 오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스포츠지도자자격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몇 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금년도에 체전에 임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이 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독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태반 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 거기에서 규정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이제 규정은 이에 따르고 형식은 약간 우리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별도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무이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승천 전무이사: 제가 생각할 때도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협회 임원 중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를 모르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국체전 감독 코치로 나오셔야 되는 그런 일이 눈앞에 닥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인솔코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인솔코치로 나오는 각 시도 협회장분들이나 사무국장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태와 더불어 또 내용을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어쨌든 현재 입장으로는 하여간 큰 문제가 닥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 이사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협회 분들과 같이 해서 어떤 운영위원 조직체를 만들고 하면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좀 더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토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저희들이 지금 딱 네 분 지금 김종일 부회장하고 홍동화 회장과 서선수씨는 광주서 어차피 감독하시니까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는 이도훈 사무국장이 따서 네 분인데 저희도 이제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장체에서 내려온 규정대로 저희도 이번에 전국체전 요강에 내려보야 합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사무국하고 우리 회장단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또 부회장님이나 수석 부회장이나 사무국이 같이 의논해서 어떤 뭐 대안이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 하태성 부회장: 아까 우리 이사님하고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그런 조직팀을 우리 협회에서 만들어서 같이 상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만 지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위원이나 조직 체제를 우리 협회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법은 법대로 가는 거고 규정 규정대로 가면서 그거를 지금 타당성있게 해야지 이거 지금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각 시도 임원도 자격증은 없어도 규정을 알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직을 한번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종일 부회장: 이게 지금 골프협회만 하면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도장체에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감독에 대한 그걸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만약에 도장체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도장체에서 우리가 그런 이런 규정이 분명히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편법을 쓴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니까 이제 그런거면은 여태까지 이제 감독은 시도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골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는데 다만 시험이나 이런 걸 아직 못 봤고 자격증 취득을 못했을 뿐인데 그렇다면은 체육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 줄 것이냐 그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체육회에서 이게 하달이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를 안 한 거는 우리가 미스인 거 같아요. 미스 인거 같고. 그 시도에는 분명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면 이제 그렇게 돼서 일단 감독이라는 거를 세우고 여기에 지금 지도자나 체제를 해서 인솔 코치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인 행사를 그분들이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편법을 이렇게 쓰면은 체육회하고 관계는 될 것 같은데 그거 이미 규정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또 하면 이것 또 장시간에 걸쳐서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 백승천 전무이사: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제 각 시도로 공지가 다 내려간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을 거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일 테고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면 운영위를 좀 확대해서 운영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각 시도 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들을 포함시키고 결국 운영을 회의를 하더라도 각 시도 감독자 회의를 한번 하고 또 운영위 회의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이원화시켜서 지금 현재는 현재 그런 불만이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그렇게 이원화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체육지도사 시험을 봤어요. 다른 종목은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지도자가 많이 배출이 되었는데 우리는 작년에 처음에 한 거라 지금 각 시도 회장님들도 그렇고 거기 임원들도 우리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하면 늦게 시행이 되었으니 우리도 한 2~3년은 적어도 유예해 주지 않을까 다른 종목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제 일격을 당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체전인데 체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훈련비 지금이나 감독들한테 이렇게 오는 일정한 어떤 수혜 같은 거는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셔야죠. 그런 내용은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논의한다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거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다만 좀 복잡하기는 하죠.

- 회장: 사무국장 생각은 어떤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 사무국장: 시도에서 감독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시도 회장님들 사무국장님들이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감독 역할을 수행을 하시려고 하면 자격증을 따셔야 합니다. 총회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격 취득을 위해 관련된 동영상 무료 강좌 같은 것들을 공지를 드리고 교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협회 분들이 고령이시다 보니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공부하실 수 있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아직 등록 기간이 있으니까 적합한 방법을 계속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다음은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안건 제1호를 상정하시겠습니다.
- 의장: 심의안건 제1호인 2022년 사업 결과 및 결산 자료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안건자료 13쪽입니다. 2022년 사업결과 및 결산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추진결과입니다. 2022년에는 5개의 종목통합대회에 3,600만원, 1개의 생활체육 대회에 1,72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종목통합대회는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경남 양산에서 진행한 파크골프대회에 550만원, 9월 울산에서 진행한 협회장배대회대회에 1,000만원, 10월 경북 문경에서 진행한 하모니 필드골프대회에 550만원, 11월 전북 익산에서 진행한 최강자전 대회에 1,000만원, 11월 강원 평창에서 진행한 서울컵 필드골프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골프존 후원금 5,000만원과 체육회 기금 1,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일간 1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종목통합 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사업결과는 안건자료 16쪽부터 21쪽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자, 심판, 등급 분류에 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에 최초로 시행된 파크골프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실기 및 구술 검정 사업에 468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 28일 충남 보령에서 113명의 응시생을 대상으로 검정을 진행하였고 57명이 최종합격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체육회

예산 360만원과 자체예산 80만원을 지원하여 2급심판 보수교육을 대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안전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3,500만원을 지원하여 필드골프 등급분류 규정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인력양성 사업결과는 안전자료 22쪽부터 24쪽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25쪽부터 3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사무국장이 심의안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일 부회장: 혹시 이번 2급 지도자시험에서 장애인이 어느 정도 붙고 비장애인이 어느정도 붙고 그런거는 없나요?
- 사무국장: 접수할 때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 응시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 김종일 부회장: 많죠 왜냐면 비장애인들 신청한 사람들이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봤을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장애인들 취득자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합격하신 분들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네 내용 확인 후에 공지드리겠습니다.
- 선인태 이사: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2022년도 세입세출 내역에 보면 이사회비 수입이 21,989,451원인데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이유는 없고 예상보다 이사회비가 많아서 어떤 이사님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나 해서 궁금해서요.

- 사무국장: 이사회비 세부내역서 2페이지 표를 보시면 2022년 이사회비는 2022년 이사회비, 이월금으로 내역을 보실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선인태 이사: 2021년에는 이사회비가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이사회비 지출이 많았네요.
- 사무국장: 2021년도에는 사업, 대회를 거의 못했습니다. 전문 체육대회는 하모니 대회 1개만 진행했고 강습회는 1건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고루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 선인태 이사: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혹시 다른 이사님들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윤석권 이사: 집행잔액과 이월금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선인태 이사: 윤석권 이사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수입, 지출, 잔액이 한눈에 보이게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 윤석권 이사: 네 맞습니다.
- 의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인태 이사: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의장: 내역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 부터는 꼼꼼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사 분께서도 동의해주시면 대한장애인골프협회를 2022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에 대하여 의결합니다.
- 이사진: 동의합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다음은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안건 제2호를 상정하시겠습니다.
- 의장: 심의안건 제2호인 2023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안건자료 3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문체육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3,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중 1,000만원은 전남 영암에서 10월로 예정된 협회장배대회에 지원되고, 550만원은 경북에서 진행될 예정인 하모니 필드골드대회에 지원됩니다. 나머지 2,150만원의 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강자전에 1,000만원 2개의 시도지부 주관대회에 각각 550만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시도 지부로 중앙협회 주관 대회 신청서를 받아서 그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지금 총 5개 시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이 중에서 대회 개최할 시도를 결정을 해 주셔서

확정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수입 지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50쪽부터 5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심의안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인태 이사: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것이 아직 신청이 안 된 건가요?
- 사무국장: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오늘 결정해야 되는 3개의 대회입니다. 최강자전, 시도지부 주관 대회 2개입니다.
- 선인태: 5개 시도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 사무국장: 네 5개 시도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드린 프린트 자료는 작년 11월에 신청 안내드릴 때 함께 드린 선정 기준입니다. 개최 실적 점수 40점이고 예산 점수는 60점 이렇게 총 100점입니다.
- 선인태 이사: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청한 시도지부에서 울산은 울산 시장배대회이고 경북은 경북도지사대회입니다. 이런 시장배하고 도지사배까지 우리 예산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보니까 지금 신청한 지부가 별로 없는데 좀 확장을 시켜서 보다 좀 많은 다른 타 대회를 열 수 있게 하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산도 울산시장배, 경북도지사배 지방비가 각 3천만원이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여기다 또 550만원 지원해서 다른 시도에 이 크고 작은 대회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백승천 전무이사: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전례가 항상 도지사배나 시장배 대회를 우선으로 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해왔던 것이 항상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시군구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저희가 지원금을 거의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군구에서 하는 대회가 사실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랬었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에서는 대략 그래도 시도에서 개최하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제가 울산 전무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울산에서는 지원금을 안 받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북하고 울산하고 봤을 때 그러면 경북이 올해 처음 도지사배를 하는 거니까 지원하는 것이 어떨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경남은 작년에 얘기된 거가 있잖아요. 최강자전 그래서 경남이 최강자전 하는 걸로 작년에 이야기를 한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이게 필드대회예요. 예 필드대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두 개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선인태 이사: 울산시장배하고 경북도지사배 이게 시도지사배인데 지방비를 3천만원씩 확보했는데 여기다 550만 원 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막 다 지출하는 모양 이잖아요.
- 백승천 전무이사: 모양이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례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예를 들면 보령이나 당진에서 그렇게 달라고 해도 우리가 안 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어요. 다른 여타 시군구에서 하는 데는. 올해 원래는 도대회나 시대회가 울산하고 경북하고 충남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충남에서 올해 안 하신다고 그러셔서 경북하고 울산하고 두 군데가 얘기가 된 건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대회 계획서를 받을 때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공지를 했는데

거기에도 예산 점수가 있는데 시군구 주관 소규모 대회에 중앙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 기준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예산을 많이 확보한 대회에 점수를 더 주고 중앙 예산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대회도 점수를 더 준다고 점수표를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처음부터 다 수정해야죠

- 선인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배포잖아요. 확정이 아니라 어떤 게 그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이
- 백승천: 이거 중앙협회에서 계획해서 공문으로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한 시도지부가 있었습니까.
- 선인태 이사: 글썄요 저도 이제 이걸 지금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눈에 보여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큰 데 그 논리대로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게 되면 이제 큰 대회만 몰아주자 우리는 지금 골고루 해가지고 여러 대회가 균등하게 분포되어서 우리 대한장애인골프협회가 한마디로 아무튼 양질의 어떤 대회가 여러 군데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취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문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저도 듣긴 들었어요. 저번에 도표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했는지 제가 그때 대충 들어서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냐면은 이게 큰 대회에 몰아주게 되어 있어요.
- 백승천 전무이사: 이런 기준을 정한 이유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시도에 중앙지원을 해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장려도 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그런 쪽에다가 점수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 선인태 이사: 이 부분은 다른 이사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이거 매우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 백승천 전무이사: 예전에도 우리가 중앙 예산을 배분할 때 거의 다 시도 대회 우선으로 예산을 줬어요.
- 선인태 이사: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의견의 하나거든요. 그걸 지금 제한된 시간 이사회에서 이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저는 차라리 사실 말해서 이게 지금 500만원 550만원이면 1,100만원을 필드골프 활성화 차원에서 한 대회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서울컵대회는 작년에 생겼잖아요. 이거 저는 생긴 줄도 몰랐어요. 이거 급하게 생겼죠.
- 사무국장: 급하게 생긴 대회는 아니고 대회는 연초에 결정되었는데 골프장 섭외가 어렵고 늦어져서 11월에 하게되었습니다.
- 선인태 이사: 저는 소규모 대회에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회장님이 올해 이제 심사 숙고 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승천 전무이사: 지금 선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면 시간도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시군구에서 하는 대회 계획도 다 수렴해서 거기 또 다 내라고 해가지고 해야 될 판인데 그거 우리가 심사하기도 쉽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 이번만큼은 그냥 여기 있는 것 자체로 해서 결정을 하죠. 어떻습니까?
- 선인태 이사: 올해는 지금 이사회에서 이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차후에 더 좋은 방향 쪽으로 이 지원이 될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최강자전은 경남에서만 신청을 했으니 경남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대회는 어떻습니까.
- 백승천 전무이사: 울산하고 경북은 경북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대중 논의가 된 것 같고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필드대회를 신청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에서 필드대회를 했는데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필드대회를 신청했으니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혜택을 받은 서울보다는 올해 처음 대회를 준비하는 경기도를 꺾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니 그거는 생각들을 좀 해보시죠.

- 소명원 이사: 필드에서 꼭 한다고 그러면 저도 경기도 쪽으로 지원해 처음 하는 대회니까 경기도 쪽에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하태성 부회장: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작년에 대회를 했으니 올해는 경기도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 사무국장: 이사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협회에서 주관하는 최강자전에 예산 1,000만원을 지원하고 경북도지사배와 경기도 주관 필드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각각 500만원, 5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이사들: 경기도 필드에 예산 550을 지원하고 경북도지사배에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무국장: 알겠습니다.
- 의장: 한참 동안 얘기 나눴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전문체육대회 5개 대회 의안 결정이다 된 거 같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 제가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문체육 예산 3,600만원은 전남에서 개최되는 협회장배대회에 1,000만원 그리고 경북에서 개최되는 하모니 필드대회에 550만원, 경남에서 개최되는 최강자전대회에

1,000만원,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필드골프대회에 550만원, 경북도지사배파골프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의장: 이제 준비된 안건은 다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좋은 의견을 주셔야 되니까 또 기타의견으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인태 이사: 기타 의견으로 올해 아쉬운 부분이자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도에 한 해 동안 회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 때 ‘골프인의 날’이라고 해서 오래간만에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자리는 말 그대로 골프인의 날로 사실 선수는 예전에는 처음에는 1위만 포상금을 지급을 해줬었어요. 1, 2, 3등 이렇게 시상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장애인 골프협회가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시도 협회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각 시도 협회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도협회 선수들은 격려를 하는데 시도 협회는 이번에 하나도 격려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에는 선수도 축하를 해주고 우수 시도부도 축하를 해주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최우수 선수는 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이번에는 상장으로 대신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트로피를 준비해서 드리곤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서 2023년도에 알찬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백승천 전무이사: 익산에서 최강자전 할 때 전국체전 단체전 출전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혼성 4인조 2인조 다 두 팀씩 해서 출전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시도가 결선에 두팀이 올라갈 경우 버리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한 팀씩만 출전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 그때 당시에 거기에 최강자전에 오셔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찬성을 하셨던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좀 확실하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하나 문제는 지금 저희가 포인트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 제도가 지금 전국체전하고 최강자전하고 협회장배 단 3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에서 하는 전국대회에서는 일정 부분 최강자전이나 전국체전보다는 덜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 경기 규정을 보면 규정이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겹쳐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경기 규정을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규정도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심판 위원장이든 교육위원장이든 또 여기 이제 우리 협회에 지금 깊은 역사를 가지고 계신 회장님들도 오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됐든 올해는 정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급분류 관련된 내용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P4 등급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중앙에 등급분류 위원회 의사분들하고 회장님하고 여기 사무국장님하고 여러 번 회의를 받고 얘기를 했는데도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협회내부에서도 조금 그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원 몇 분이 됐든 모여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는 등급분류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이제 저희가 등급분류 기준을 결정하더라도 P4 등급은 올해 체전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최강자전하고 협회장배에서 혼성 2인조를 저희가 해봤잖아요. 회장님 어떻게 올해 그거는 되겠습니까?
- 의장: 그래서 일단은 체육회에서 승인하는게 문제니까 일단은 올리기는 했습니다. 혼성 2인조를 올렸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부탁을 해 봐야 되고, 그건 내가 해볼게요.

- 백승천 전무이사: 올해 또 혼성 2인조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저희는 두손 들어서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저희도 우리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보면 이게 파크골프 쪽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용품이나 이런 게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본 쪽 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좀 지양하고 저희 체전에서도 지금까지 항상 외국산 용품을 썼거든요. 이제 체전 공인구를 발표하는데 항상 외국산을 썼어요. 그래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용품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데도 이렇게 뭐 제대로 수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장세주 이사님이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피닉스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파크골프 채나 공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도 용품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피닉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산품을 좀 사용하고 이용을 해주면 우리나라에서 제작, 판매되는 제품이 활성화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저는 제가 열심히 지금도 여기 장 이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우리 공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에서 기계까지 다 들여서 지금 생산을 하시고 있는데 그게 한 10일이나 보름 뒤면 새 제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품을 한번 보고 그래도 국산품을 우리가 사용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봅니다.
- 선인태 이사: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같은 의견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말에서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년전부터 나왔던 의견이거든요. 올해는 일단 우리가 체전공을 우리 국산 제품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앞서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물론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미 이런 의견을 드려요. 외국산 제품 하고 우리 국산 제품하고 단적으로 해서 외국산 제품은 일단 출시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다 입증이 됐어요. 국산 제품은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를 삼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어느 부분이나 초창기 시행을 하게 되면 문제점을 항상 안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올해 국산 제품으로 품질은 좋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회장님이 결단 내리셔서 경기위원장님하고 의논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천 전무이사: 공인구 발표가 언제 되죠?
- 사무국장: 시기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일찍 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4월 이전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승천 전무이사: 장세주 이사님한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공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은 그냥 주신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세주 이사님께서 이걸 현재 있는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장세주 이사님도 새 기계를 다시 도입하고 해서 공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왔는데 그걸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공이 나오면 장세주 이사님이 이제 이 공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각 시도로 우선 그 공을 좀 보내서 사용해보고, 이게 우리가 체전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 장세주 이사: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이제 장애인 골프대회에 한 50%는 제가 갔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장애인 쪽에 상당히 용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만 개 정도 공을 생산하고 전국에 보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자주 만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장애인협회 이사로 들어와서 함께 같이 협력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예 감사합니다.
- 백승천 전무이사: 그리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요. 금년 체전을 목표에서 하는데 구장은 저희가 확정을 졌습니다. 확정을 졌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언제부터 우리 장애인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장하고 저하고 2월 중에는 구장에 갔다 오기로 했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7~8월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어쨌든 구장 관계자들하고 이걸 확정 짓기 위해서 2월 중에는 방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2월, 3월부터 선발전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선수 선발전을 꼭 영암구장 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선수 선발전은 자체구장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남쪽이라 하더라도 3월 이전에는 구장 개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잔디보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3월 이전에는 다 휴장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고집하는 데가 있는데 선발전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각 시도에서 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선인태 이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준비된 안건은 다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의견들 다 의논했고 이상으로 2023년도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제1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 3타〉